

# 올해 하수도 정비 추진 박차

### 군산시, 도심·읍면지역 대상 우·오수 분류화 추진 중앙·대야분구 주요 침수지역 침수예방사업 본격화

군산시가 2026년 하수도 정비사업 확대 추진을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수질 보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우·오수 분류화, 노후 하수관로 정비, 침수 예방 등 기존 계속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신규사업 5개를 추가 확보해 하수도 기반 시설 전반에 대한 투자 규모를 크게 확대했다.

먼저 기존에 추진 중이었던 우·오수 분류화 사업과 침수예방사업,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이어가는 한편, 2026년에 추가로 확보된 신규사업 5개도 병행해 나간다는 계획을 세웠다.

신규사업은 △중앙배수분구 도시침수예방사업(7.8억, 설계비) △대야배수분구 도시침수예방사업(8.3억, 설계비) △대야하수관로 정비(5억, 설계비) △회현 하수관로 정비(4.3억, 설계비) △대야공공하수처리장 증설(300ton/일, 5억, 설계비)이다.

또한 시는 도심·읍면지역 우·오수 분류화 사업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우·오수 분류화 사업은 '군산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우수와 생활오수를 분리 처리하는 사업으로, 하수관로 파우해 해소와 수질 개선, 악취

저감에 효과가 있다. 현재는 금암분구, 구암·조촌분구, 개정분구 등 도심 지역에서 우·오수 분류화 사업이 진행 중이며, 신북분구는 실시설계가 이뤄지고 있다.

이외에도 성산면, 옥구읍(다기), 옥산면(봉동), 개정면(정수), 서수면(하장근), 옥도면(선유,장자) 등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한 마을 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오수관로 정비사업도 한창이다.

군산시 하수도 관계자는 "우·오수 분류화와 침수예방사업은 단기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도시 기반 사업"이라고 강조하며 "2026년에도 기존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면서 신규사업을 추가 확보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는 앞으로도 국비 확보와 단계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하수도 정비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위와 같은 사업계획은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주민과의 근접 행정으로 이와 같은 결과를 만들어 낸 관계 공무원의 주민과의 소통과 노력으로 낸 성과물이라 할 것이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약 976억원 규모의 중장기 사업으로, 2026년에는 신규사업에 대한 기반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연차적으로 공사를 시행하

여 2029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시는 사업이 완료되면 집중호우 시 도심 저지대 및 주거지역의 침수 피해가 크게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수관로 노후화로 인한 파손 및 기능 저하에 대응하기 위해 노후 하수관로 2단계 정비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정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노후·불량 관로를 단계적으로 정비하여, 관로 파손 및 역류로 인한 생활 불편과 침수 위험을 예방하고 하수도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할 구상이다.

군산시 하수도 관계자는 "우·오수 분류화와 침수예방사업은 단기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도시 기반 사업"이라고 강조하며 "2026년에도 기존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면서 신규사업을 추가 확보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는 앞으로도 국비 확보와 단계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하수도 정비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위와 같은 사업계획은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주민과의 근접 행정으로 이와 같은 결과를 만들어 낸 관계 공무원의 주민과의 소통과 노력으로 낸 성과물이라 할 것이다.

/군산=김만호 기자



익산시는 지난 3일 이리중앙교회 식당에서 (주)하림과 함께하는 '다리로움 밥차'를 진행한 가운데, 최정호 익산시장(가운데)이 배식 봉사에 나서고 있다.

## 취약계층 위한 배식 '구슬땀'

### 최정호 익산시장, 다리로움 밥차배식봉사 나서 이리중앙교회서 하림과 함께 삼계탕 보양식 제공 취임 후 첫 복지 행보... "밀착안전망 구축" 다짐

익산시 민선 9기 최정호 호가 취임 후 첫 민생 복지 행보로 취약계층을 위한 밥차 배식 봉사에 나서며 온기 가득한 소통을 시작했다.

익산시는 지난 3일 이리중앙교회 식당에서 (주)하림과 함께하는 '다리로움 밥차'를 통해 지역 취약계층 주민 400여 명에게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보양식 삼계탕을 제공했다. 다리로움 밥차는 시민과 기업, 자원봉사자들의 자발적인 후원과 참여로 운영되는 익산시의 대표적인 민관 협력 나눔 사업이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최정호 익산시장도 직접 현장을 찾아 양치미를 두르고 (주)하림 봉사단체와 함께 삼계탕을 배식했다. 최 시장은 식사를 하러 온 시민에게 무더위 건강관리 당부와 함께 애로사항을 경청하는 등 현장 밀착형 소통 행정을 실천했다.

이번 나눔 행사는 지역 대표 식품기업인 (주)하림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성사됐다. 정호석 (주)하림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봉사단이 직접 현장 봉사에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지역사회의 도움도 이어졌다. 이리중앙교회는 쾌적한 식당 시설을 제공했

고, 부총중합사회복지관은 부식품 준비와 이용자 안내 현장 질서 유지를 도맡아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유기적으로 협력했다.

정호석 (주)하림 대표이사는 "무더위를 앞두고 지역 주민들에게 든든한 보양식을 대접하는 시간이 하림 임직원들에게도 큰 보람이자 기쁨"이라며 "앞으로도 익산시와 함께 발전적 지역 사회와 상생하고 지속해서 나눔을 실천하는 함포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최정호 시장은 "폭염을 앞두고 취약계층 주민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정성껏 삼계탕을 마련해 준 (주)하림과 모든 자원봉사자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민관이 함께 뜻을 모아 소외된 이웃을 촘촘하게 살피는 따뜻한 복지 공동체를 확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주)하림은 익산의 대표 함포기업으로 꾸준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며 귀감이 되고 있다. 올해에도 총 4,000만원 상당의 자사 식품을 아낌없이 기부하며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익산=이재춘기자

## 군산시, 10일 개장 '오션팔레트' 현장 점검

### 김재준 시장이 직접 나서 운영 준비상황 등 확인 "안전, 무엇보다 중요"



군산시가 오는 10일 정식 개장하는 해양레저파크 '오션팔레트'의 임시개장 첫날인 지난 3일, 김재준 시장이 현장 점검을 실시하며 운영 준비상황과 안전관리체계를 최종 점검했다.

군산시가 오는 10일 정식 개장하는 해양레저파크 '오션팔레트'의 임시개장 첫날인 지난 3일, 김재준 시장이 현장 점검을 실시하며 운영 준비상황과 안전관리체계를 최종 점검했다.

이날 점검에는 김재준 시장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다. 김 시장은 오전에 비뉴에서 운영 현황을 보고받은 뒤 해양레저파크, 서핑장 인공파도풀, 인피니티풀 레저레이크, 캠핑장 등 주요 시설을 순차적으로 둘러보며 안전관리 실태를 세밀하게 확인했다.

김 시장은 이날 이용객 이동 동선과 안전시설, 안내체계, 응급 대응체계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정식 개장 전까지 미비한 사항은 즉시 보완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레저레이크에 대해서도 현장 점검을 실시하며 시설의 안전성과 운영 적정성, 향후 활용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시는 레저레이크의 안전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시설 상태와 운영계획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으며, 시민과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

하여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된 이후 단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김재준 시장은 "오션팔레트는 군산을 대표하는 해양관광시설인 만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며 "시설 운영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위험 요인이 있다면 충분히 보완한 후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즐기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개장 이후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오션팔레트가 서해안을 대표하는 해양

레저 명소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션팔레트는 총사업비 427억 9천만 원을 투입해 조성된 서해안 최대 규모의 해양레저 복합시설로, 인공파도풀과 서핑장, 갑수풀, 인피니티풀, 캠핑장, 아쿠아카페 등 다양한 해양레저·휴양시설을 갖추고 있다. 군산시는 임시개장 기간 운영 결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오는 10일 개장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군산=김만호 기자

## '시민의 마음 담아 신뢰받는 열린 의회'

### 군산시의회, 제10대 전반기 의회 슬로건 설정

군산시의회(의장 서동수)가 제10대 전반기 의회의 미래상과 핵심 가치를 담은 슬로건으로 '시민의 마음을 담아 신뢰받는 열린 의회'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슬로건 선정은 제10대 군산시의회의 의정 활동을 대내외에 알리고, 앞으로 의정활동의 방향과 목표를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산시의회는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슬로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제10대 시민위원들의 선호도 조사를 거쳐 비전 슬로건을 최종 확정했다. 특히 의회를 이끌어갈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기획 단계부터 적극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의정 비전을 함께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제10대 군산시의회의 전반기 슬로건인 '시민의 마음을 담아 신뢰받는 열린 의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원칙과 책임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이와 함께 구체적인 실천 방향으로는 △경청하고 소통하는 현장중심 의회 △부담하고 공정한 원칙 의회 △생애 주기 성장하는 혁신 의회 △함께 상생하는 협력의회로 정했다.

군산시의회는 앞으로 이번 슬로건을 의정활동의 기본 지침으로 삼아 시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신뢰받는 의회상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군산=김만호 기자

### 군산시, 기후변화 대응

### 신품종 '3배체 굴' 시범 본격

군산시가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양식 품종을 육성하기 위해 옥도면 장자도 해역에 신품종 시범양식 여장을 조성하고 3배체 굴 치과 3만 마리를 입식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번에 입식한 3배체 굴은 일반 굴과 달리 번식능력이 없어 신리에 소모되는 에너지를 성장에 집중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로 인해 일반 굴보다 성장 속도가 빠르고 크기가 커 상품성이 우수하며, 해외에서도 수요가 높은 고급 수산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여름철 신라기에도 품질 저하가 적어 사계절 안정적인 채취와 유통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군산=김만호 기자

## 학교 교실 밖에서 배우는 익산

### '그레이트 익산 여행' 운영

익산시가 지역에 대한 청소년들의 이해와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교육형 여행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

익산시는 지난 3일 '그레이트(韓) 익산 여행' 운영을 시작하고, 이일여자중학교 학생 135명을 대상으로 '지역브랜드X콘텐츠X기획 체험 코스'를 진행했다.

'그레이트(韓) 익산 여행'은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교장 바로알기 지역 특화 프로그램'이다. 청소년들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 산업을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며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진로 탐색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익산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익산교육지원청, (재)익산문화관광재단과 함께 지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프로그램은 익산의 역사·문화·산업 자원을 연계한 현장 체험 중심 교육으로 총 2개 코스로 운영된다.

/익산=이재춘기자

## 16~26일 '기록관에서 만나는 익산' 운영

### 익산시민역사기록관

익산시가 여름방학을 맞아 기록을 통해 익산의 역사와 문화를 쉽고 재미있게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익산시민역사기록관은 오는 16일부터 28일까지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 '기록관에서 만나는 익산'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시민들이 기록관을 보다 친숙한 문화공간으로 느끼고, 전



'산역사X진로 체험 코스'는 한 문화의 발상지인 익산의 역사적 가치를 배우고 지역 대표 식품기업을 방문해 식품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다양한 직업 세계를 탐색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지역브랜드X콘텐츠X기획 체험 코스'는 함리현목마을을 중심으로 인문학 기반 지역브랜드를 체험하고, 지역의 역사와 문화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기획 활동이 진행된다.

한편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익산문화관광재단(063-918-9988)으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이재춘기자

시된 기록물을 통해 익산의 숨은 이야기와 기록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참가자들은 기록관 전시실을 둘러보며 익산과 관련된 다양한 기록물을 살펴보고, 기록 속에 담긴 단서를 찾아 문제를 해결하는 퀴즈 탐험에 참여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민역사기록관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전화(063-859-4622)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이재춘기자

## 지역 소식통

### '맛의거리 마티단길'

### 중기부 유망골목상권

군산시 월명동 구영7길 일원인 '맛의거리 마티단길 골목형상점가'가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2026년 지역상권육성사업 '유망골목상권'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맛의거리 마티단길'은 군산시가 골목형상점가가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조례를 개정한 이후 선제적으로 지정된 상권이다. 이번 유망골목상권 선정으로 군산을 대표하는 특화 상권으로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총 4억 6,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이를 바탕으로 객주상회 브랜드 개발과 홍보 콘텐츠 제작, 온·오프라인 미디어 홍보 상인 협업 행사인 '1899 객주시장' 운영 등 상권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공동 마케팅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군산시는 기존의 주간 관광 중심에서 벗어나 시민과 관광객이 밤에도 즐길 수 있는 야시장 등 야간 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상인회와 상권기획자가 중심이 되는 자회 기획형 사업을 추진해 일회성 지원을 넘어 상권 스스로 지속 가능한 운영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군산=김만호 기자

### 군산 금강도서관, 전북

### 공공도서관 운영 '최고점'

군산시 금강도서관이 전북특별자치도 주관 2026년 공공도서관 운영평가에서 도내 44개 참여 도서관 중 최고점을 기록하며 종합 1위를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다.

금강도서관은 한 해 동안 '책수달, 그림책', '그림책 신책'을 비롯해 '야의 독서문화축제'인 '책책북북 페스티벌' 등 시민 참여형 특화 프로그램을 상공적으로 운영했다.

또한,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등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장애인 도서관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누구나 쉽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장벽을 낮추는 포용적 서비스 확대에 힘써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와 함께 군산시립도서관도 '정성평가 우수도서관'에 선정됐다. /군산=김만호 기자

### 창업 아이디어 한자리에

### 익산시 경진대회 개최

익산에서 전북 지역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선보이는 창업 경진대회가 열렸다.

익산시 중앙년 기술창업센터는 지난 3일 전북중장년기술창업센터, 전주인창초기업지원센터와 함께 2026 전북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경험 ON, 창업 START!' 경험에 가능성을 더하다'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유망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와 초기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창업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사전 심사를 거쳐 선발된 14개 팀이 참가해 기술 기반 창업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사업성과 성장 가능성을 겨뤘다. 특히 익산시 중앙년 기술창업센터 입주기업도 참가해 지역 기술창업 역량의 우수성과 성장 가능성을 재입증했다. /익산=이재춘 기자